

# 이산가족 소설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욕망과 위선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중심으로

문 화\*

## 요약

이 글은 박완서(1931~2011) 작가의 장편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3)가 이산가족 상봉 국면에서 감추어진 한국 사회의 욕망과 위선을 드러냈는데 착안하였다. 이산가족의 재회를 막는 것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아래 과거를 잊고 전진하는 속물적 태도였다. 본고는 동생 오목이를 찾고도 모르는 척하는 수지와 수철 남매에게서 이러한 속물성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고 특히 이 속물성이 최소한의 위선이나 죄책감도 없는 뻔뻔스러움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1960년대 중반 고아원을 나온 오목이가 겪는 시련은 고아가 된 이산가족이 한국사회에서 뿌리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생 고아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오목이가 남편이 어렵사리 중동 일자리를 얻어 떠난 후에 죽고 또 다시 아이들만 남는 장면은 고아의 가족 만들기 어려움의 상징이다. 이산가족 세 남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속물적 욕망은 이산가족 상봉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데 이는 여타의 이산가족 서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속물, 이산가족, 위선, 죄책감, 뻔뻔스러움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비교문학 박사수료

목차

1. '눈물의 이산가족 드라마'에 대한 비판
2. 위선과 망각이 만든 배타적 가족 공동체
3. 고아 신세 벗어나기의 어려움
4. 반성하는 속물의 마지막 위선

## 1. '눈물의 이산가족 드라마'에 대한 비판

1980년대, 휴전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묵혀 두었던 '이산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sup>1)</sup> KBS는 1983년 이산가족을 찾는 3시간짜리 단발성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가 예상을 뛰어넘는 행렬이 이어지자 정규방송을 취소하고 138일 동안 '이산가족 찾기' 방송<sup>2)</sup>을 특별 편성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산가족을 찾는 이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서도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sup>3)</sup>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후 삼십 년 만의 만남으로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였을까. 같은 시기 박완서 작가가 발표한 '이산가족 소설'들은 당시 이

1) 1971년 8월 처음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외한 이래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실질적인 진전과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5년에 이르러서야 첫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산가족문제가 1980년대까지 진척이 되지 않은 데에는 냉전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경제성장·발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 이산가족 찾기 관련 자료는 다음을 참고. 강준만, 『제4장 '맹진뉴스'가 대변한 '진두환 공화국', 1983년』,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 2: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 인물과 사상사, 2003. 137-142면.

2)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3시간 45분 동안 KBS가 생방송으로 방영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 2015년 10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3) "KBS 별관 앞에 늘어선 이산가족의 룡삿과 감격에 겨운 상봉장면 클로즈업을 번갈아 보여줌으로써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감정적으로 동일시하게 되는 극적효과를 만들어냈다." 김승경, 『1980년대 이산가족 영화에서 드러나는 가족주의 양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55, 2013, 220면.

산가족 찾기 방송으로 온 국민이 하나된 분위기에서는 볼 수 없는 이질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비추는 카메라의 원색적 편집에 분통을 터트리거나(『비애의 장(章)』<sup>4)</sup>), 다시 만난 가족에게서 경제적·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질감만 느끼고 도리어 안 만나느니 못한 상황에 처한(『재이산(再離散)』)다. 모두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물입을 할 때 어째서 유독 박완서 작가의 인물들만은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박완서 작가의 여러 작품들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는 전쟁을 쉽게 망각하고 제 살길 도모에만 바쁜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이다. 일례로 작가가 1973년 발표한 단편 『부처님 근처』의 ‘나’는 전쟁으로 억울하게 식구가 죽은 것도 모자라 그 죽음을 삼키듯 감추기에 바빴던 세월에 대한 억울함과 부채감을 뒤늦게 토해낸다. 소설 속 ‘나’를 비롯하여 실제로 전쟁으로 두 식구를 잃은 박완서 작가에게 한국전쟁은 휴전 후 몇 십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제대로 해명되지도 애도되지도 못한 기억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상기할 때 이산가족의 눈물을 갈등 봉합의 도구로 이용하는 세태를 향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박완서의 인물들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의 희생을 목격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 역시 전쟁이 희생시킨 것을 쉽게 잊는 낙관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삶은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문화는 ‘재건되리라’는”<sup>5)</sup> 생각은

4) 신수정은 『비애의 장』의 인물을 “알고 있으나 행동할 수 없는 현대적 통치성의 산물”로 “냉소적 이성”(슬로토다이크)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냉소적 주체가 ‘통치의 그물에 포섭되지 않고 그것에 한 점 의혹을 보내기를 잊지’ 않으며 “불안과 더불어 실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대항 품성’이라고 할 수”(『1970~1980년대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와 중동 건설 노동자 가족의 에토스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공모와 균열의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0, 2016, 362면.)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박완서 작가의 ‘냉소’에 주목한 논문은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7(1), 2011, 71-92면을 참조할 수 있다.

5) 테오도르 아도르노, 김유동 역, 『33.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미니마 모랄리아』, 길, 2005,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고 남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전쟁이야말로 파국에 가까운 것인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쉽게 극복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이산가족이 ‘눈물의 재회’를 나누는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편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여타 이산가족 서사와 차이가 있다. 작가의 초판 후기에 따르면 연재 당시 이산가족인 두 자매가 다시 만나고도 가족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끝나는 소설의 결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독자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나 작가가 단행본으로 소설을 엮을 즈음에는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눈물의 드라마’가 한창이었기에 결말이 수정되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후의 사정은 소설의 결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sup>6)</sup>

무엇보다도 본고가 주목한 것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가 이산가족 문제를 전쟁이나 분단의 산물로 국한<sup>7)</sup>하지 않고 당대의 속물적 욕망 역시 면죄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만의 관점이 동시대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소설의 표면적인 줄거리가 1951년 피난길에 일곱 살이었던 수지가 동생을 버린 이후 거듭 다시 만나고도 자매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이다 보니, 당대의 비평에서는 수지의 이기심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것처럼 확대해석 된 바가 없지 않다. “민족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했다는 평가<sup>8)</sup>가 나온 것도 역시 바

81-82면.

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초판(1983) 작가 후기 참고.

7) 1980년대 초, 이산가족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 활발하게 생산되었고, 대중에게도 호응을 얻는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길소뜸>(1986)이 대표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냉전체제의 산물로 놓고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길소뜸>은 국내에서도 흥행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 분단을 소재로 한 소설을 각색한 영화도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가 영화화(이장호 감독)되는 한편, 본고에서 분석하는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역시 1984년 같은 제목의 영화로 개봉했다.

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 줄거리에만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시대에 소설이 영화화<sup>9)</sup> 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졌는데, 영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경우 수지와 오목이 두 여성 사이의 갈등을 전면화 하면서 수지의 악행이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오목이는 비극의 일방적 피해자가 되었고 이야기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영화는 크게 흥행했으나 원작에 있는 전쟁 이후의 망각에 대한 비판의식을 놓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완서 작가의 다른 장편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편이다. 이 작품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에는 정미숙과 우현주의 논문이 있다.<sup>10)</sup> 정미숙은 전쟁이 ‘가족의 허구성’을 드러냈다는 점에 착목하였고 수지와 오목이의 서사가 가족 내부에서 여성이 억압을 받는 위치에서도 굴하지 않고 가능성을 찾는 대목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우현주 역시 전쟁으로 수직적 혈연 가족이 해체되고 수지와 오목이의 아이들 사이에서 수평적 가족 공동체가 재건되었다고 보았다. 두 연구 모두 소설의 후반부의 내용인 수지가 병든 오목이와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는 장면에 대해 ‘수지와 오목이의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 해석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8) 민족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했다면서 비판하는 시선은 다음을 참조.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林婉緒 長篇小說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창작과 비평』 15(3), 1985.10.

9)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강화한 영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당시 서울에서만 십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 기록을 세웠다.

10) 정미숙,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가족과 젠더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9권, 2006; 우현주,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수평적 新가족 공동체 형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66, 2015. 이외에 단행본에 실린 해설로는 권명아, 『작품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가족의 기원〉에 관한 역사소설적 탐구』,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박완서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세계사, 2000; 소영현, 『한국 중산층의 형성과 한국전쟁이라는 죄의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 2』, 세계사, 2012;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사회의 속물화: ‘형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정치의 임계, 공공성의 모험』, 해안, 2014, 163-200면이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소영현의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가 한국사회의 총체적 속물성을 들여다보는 작품으로 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다. 하지만 본고는 수지와 오목이의 마지막을 새로운 가족 형성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소설 속에 더 많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생각을 달리한다. 또한 앞선 두 연구가 수지와 오목이의 관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오빠 수철 등을 포함한 다른 남성 인물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어느 한 개인의 선의에 달려 있지 않는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박완서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 중의 하나는 전쟁 이후 근대화 시기의 지배적인 속물적 도덕에 대한 비판이다. “근대화론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군사정권이 등장하여 ‘조국 근대화’를 표방하면서부터였다.”<sup>11)</sup> 박완서 작가가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1970년대의 한국 근대화론의 핵심은 식민과 전쟁 경험으로 뒤쳐진 경제 분야의 근화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모두 억압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정상적인 근대화론이 불러일으킨 역사에 대한 망각과 왜곡이라는 결과가 권력의 일방적인 강요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박완서의 작품이 거듭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발독재시기를 배경으로 한 박완서 작가의 작품은 당대의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잘 살아보세”는 구호가 마치 주술처럼 자리 잡았음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성공신화에 마음을 뺏기고 “생존주의”<sup>12)</sup>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소시민적인 태도는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 외에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태도로 코제브가 말한 “역사 이후의 인간”<sup>13)</sup>이라는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대화 항목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7%BC%EB%8C%80%ED%99%94&ri dx=0&tot=2189>

12) 김홍중, 『생존주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죽음의 문제』, 동양사회사상학회, 2017 사회사상과 문화 Vol.20 No.4, 237-273면. 김홍중의 ‘생존주의’와 코제브의 ‘속물’ 개념 등을 재구성하여 박완서의 소설을 연구하는 논문은 차미령, 『생존과 수치: 1970년대 박완서 소설과 생존주의의 이면(1)』, 한국현대문학회, 2015,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47, 445-480면이 있다.

13) 코제브는 역사의 종말 이후의 동물적 삶에 대해 미국식 모델을 ‘동물로’, 일본식 모델을 ‘스늬’으로 정의한다. 코제브는 동물과 속물을 구분하고 있으나, 그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주요

유형에 그 기원이 있다.

2장에서는 수지와 수철이 1951년 피난길에 헤어진 동생을 재회하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수지나 수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속물적이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차이도 있는 것이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 위선일망정 자선활동을 하는 등 동생을 돕는 수지와 어떤 갈등도 없는 수철의 태도는 다르다. 수철의 망각이 죄책감으로 인한 갈등이 없는 뻘뻘스러운 형식을 띤다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수철의 죄책감 없는 상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의 결핍이기도 한데, 이러한 상태는 게오르그 짐멜이 말한 ‘부끄러움을 상실한 인간’과도 유사하다. 짐멜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적 인간 유형으로 ‘부끄러움을 상실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독자적 개인이기를 포기한 인간’<sup>14)</sup>을 말한다. 이산가족을 찾고도 거듭 부정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망각한 수철이 기업인이라는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수철의 모습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답습한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장에서는 고아인 오목이가 겪는 시련에서 “우리도 잘살 수 있다.”(1권 95면)는 구호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1960년대 중반 고아원을 나온 오목이는 ‘집 같은 집’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고아 신세 벗어나기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전쟁을 잇고 약속된 미래의 행복을 꿈꾸던 당대의 한국사회는 오목이가 가족을 찾는 일에 관심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희망을 놓기까지 했다. 결국 오목이가 겪은 시련은 고아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빈부격차가 고아의 자립을 막는 것이 당대

---

하게 삼고 있는 ‘혜겔식 인정투쟁’을 동물과 속물 모두 상실했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차이보다는 모두 ‘역사이후의 인간’이라는 유사점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제브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 알렉상드르 코제브, 설현영 역, 『역사와 현실변증법』, 한빛, 1981; Alexandre Kojève, James Nichols(trans.),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Cornell Univ. Press, 1969.

14)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236-239면.

의 현실이었음을 보여준다.

## 2. 위선과 망각이 만든 배타적 가족 공동체

### 1) 원죄를 은폐하는 위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sup>15)</sup>의 수지는 동생을 잃어버린 1951년 겨울의 피난길을 잊을 수 없다. 전쟁 중에 식구를 잃어버린 것이 수지 하나 뿐은 아니겠으나 그 기억이 특별한 것은 그들이 이산가족이 된 데에 수지 자신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50년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지자 은행원이었던 수지 아버지는 반동으로 몰려 끌려다니다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후 전선이 엮치락뒤치락하면서 세 달 만에 수복한 서울을 다시 내주게 된 겨울, 그러니까 1.4후퇴 즈음 일곱 살 수지는 두 살 어린 동생 오목이를 ‘유기할 생각을 한다. 당시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은 수지네 식구들은 수원의 외갓집에 의탁하고 있었다. 터울이 많은 오빠 수철은 몰라도 당시 일곱 살이었던 수지나 두 살 어린 오목이의 경우 한참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했던 나이였다. 하지만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의욕을 잃은 어머니나 다른 친척들은 수지나 오목이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동생 오목이를 돌보는 것은 자연히 수지 몫이 되었는데 식탐 많은 동생에게 먹을 것을 뺏기는 일도 역시 포함되었다. 어른들은 수지가 기특하다고 칭찬했지만, 수지가 남달리 착해서 동생과 먹을 것을 나눈 것은 아니었다. 오목이는 물론이고 수지 역시 “갑작스러운 애정의 공백 상태에서” “심한 허기증”(1권 28면) 앓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착한 아이 노릇에 지친 수지”는 급기야 “오목이만 없었으면 하는 공상”(1권 29면)을 하는 데 이른

---

15)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 2, 세계사, 2012에서 인용한다.

다. 몰려온다는 중공군을 피해 외갓집 식구들이 피난집을 싸서 더 남쪽으로 길을 나서기로 한 날 수지는 장터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동생 오목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손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수지는 동생이 피난민들 사이에 휩쓸려 떨어진 후에야 “수인아, 수인아”라고 동생 이름을 외친다. 원래 다섯 살 오목이는 자신의 아명 외에 ‘수인’이라는 호적상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수지는 동생도 모르는 이름을 부르면서 동생을 잃은 언니 행세를 훌륭하게 해낸다. 어른들 역시 수지가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역할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적군 치하의 서울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수지네나 다른 피난민들은 “딸 하나를 잃는 것보다 마지막 피난의 대열에 뒤처져 중공군에게 털미를 잡히는 게 더 무서웠다.”(1권, 37면) 외할머니는 출발이 늦어져 피난민들 행렬에 끼지 못하고 뒤처지게 된 것을 “오목이 고년 때문이라니까. 잘 없어졌다. 그런 애물은.”(1권, 39면)이라면서 손녀를 닮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수지의 기억대로라면 오목이를 유기한 그녀는 물론이고 다른 식구들 모두 이산가족을 만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1.4후퇴 피난길에 잃어버린 오목이를 수지는 총 세 번에 걸쳐서 재회한다. 첫 번째는 1960년대 중반으로 ‘오누이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다. 수지는 여기서 잃어버린 동생의 아명이었던 ‘오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아를 만난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원장의 성을 따 대부분 유 씨 성을 쓰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혼자만 오씨 성을 쓰고 있어서 눈에 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오목이가 친동생인지 아닌지를 좀 더 정확하게 증명할 만한 단서들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오목이라는 고아에 대한 수지의 남다른 관심을 남에게 들킬까봐 숨기기까지 한다. 수지의 고아원 봉사 활동은 여러 모로 모순적이다. 수지가 뒤늦게나마 동생을 찾기 위해서 고아원을 드나드는 것이라면 동생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만나면 마땅히 내력을 알아보고 친자매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동생을 찾으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하고 싶다면 고아원에 드나들지 않는 게 맞다. 특

하나 수지가 동생이 자신의 유기계획에 대해 알고 있을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수지는 오목이가 동생인 것을 확인하지도 아예 피하지도 않으면서 고아원 방문을 지속한다. 그러다가 오목이가 취직을 하면서 고아원을 나가고 얼마 후에 마침 ‘오누이의 집’이 도시개발로 팔려 문을 닫게 되었고 두 사람이 자매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채 인연이 끊어진다.

두 번째 만남은 대학원을 졸업한 수지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때에 이루어진다. 수지는 우연히 캠퍼스 커플이었던 인재가 오목이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인재와 오목이가 아는 사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오목이가 목에 걸고 있는 ‘은표주박’은 수지를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은표주박’은 수지와 오목이가 친자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 동생과 헤어지면서 수지가 걸어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친동생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고 드디어 사실을 입증하는 물건을 목격하기까지 했지만, 수지는 오목이에게 다가가 언니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그 대신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오목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하지만 그녀는 막상 오목이가 망신을 당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자 이번에는 오목이에게 속았다고 투덜대는 인재를 비난하고 오목이를 측은해 한다.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사랑했던 말인가?

수지는 자신을 위해서도 오목이를 위해서도 같은 개탄을 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의 실상을 발견한 느낌은 한바탕의 쓸쓸한 환멸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목이가 사랑한 남자의 실상을 대하는 느낌은 좀 더 복잡했다. 목 놓아 울고 싶은 비애였고 먹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주고 싶은 원색적인 분노였다.

...

그녀가 오랫동안 사랑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만 오목이를

헌신짝처럼 버린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아아, 가엾은 오목이, 불쌍한 것! 잠깐 늦게, 아니 돌이킬 수 없이 늦어진 다음에야 수지는 비로소 자신의 분노가 뼈와 살을 나눈 동생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1권, 294면)

인재 앞에서 거짓말이 탄로나 오목이가 쫓겨난 것이 수지 자신의 폭로 때문이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오목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떠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탓이라도 되는 것처럼 수지는 인재를 미워하고 오목이를 안타까워한다. 동생 오목이가 ‘불쌍한’ 처지가 된 것이 언니 수지 탓만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측은지심이라고 하겠지만, 수지의 앞선 행동을 볼 때 이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수지 자신도 잘 알고 있듯이 그녀는 오목이를 가여워하는 방식으로만 ‘동생임을 받아들이 수가’(1권, 294면) 있었다. 수지는 오목이가 자신의 자매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로, ‘고야’인 오목이의 불쌍한 처지를 연민하는 ‘위선’을 통해서만 언니 노릇을 한다.

수지의 행동은 ‘오목이가 “20년 전에 버린 동생이란 게 의심할 여지없이 밝혀”졌는데, 오히려 “혈육의 정과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운 눈물을 쏟기는커녕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고자”(2권, 292면)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1951년 겨울의 일이야 전쟁으로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시절에 일곱 살짜리 어린 애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쳐도 이번에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도 모자라 오목이가 인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오히려 더 독하게 망신을 준 것은 지나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이렇게 둘 사이를 꺾방을 놓은 것이 인재에 대한 질투 때문만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미 인재에 대한 수지의 마음은 식었고 기육이라는 전도유명한 집안의 남자와의 혼담이 오가는 중인 것이다. 수지가 오목이 앞에서 과민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도 ‘은표주박’ 때문으로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는 강

력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짐작된다. 그러니까 1951년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수지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동생 오목이를 ‘고아원’ 출신이라고 폭로한 같은 날 저녁, 수지는 귀가 해서는 결혼을 서두르라는 오빠의 잔소리를 듣는다. 혼기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오빠와 그런 잔소리를 싫지 않게 듣는 여동생의 대화는 앞선 장면만 없었다면 평범한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이제 막 전쟁 통에 잃어버린 동생 오목이를 눈앞에 두고도 매몰차게 부인하고 들어오는 길이다. 그런 데도 수지는 태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오빠 앞에서 헤어진 동생 얘기를 꺼낸다.

“수인인 살았을까?”

수지가 지나가는 말처럼 무심히 말했지만 그 분위기에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너도 그 애 생각이 나나 보구나?”

“그럼 오빠도?”

“그 애도 시집갈 나이가 됐으려면.”

“살기나 했을까요?”

“글쎄다. 널 시집보내려니 그 애를 찾아 돌보지 못한 게 더욱 걸리는구나.”

“오빠 최선을 다했어요.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예요.”

“그 애도 먼 훗날이라도 좋으니 그걸 알아줬으면 좋으려면…….”

“오빠!”

“잘 살아야 한다. 그의 몫까지.”

위선의 교감은 감미롭고 짜릿했다. 둘 다 눈시울을 적시고 있을 때 전 화벨이 울렸다.(1권, 301면)

피난길에 멀어지는 동생을 부를 때 오목이 대신 ‘수인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수지는 오목이라는 이름 대신 “수인인 살았을까?”

라고 묻는다. 수인이라는 이름은 다섯 살 오목이는 물론이고 식구들조차 잘 쓰지 않았던 호적상의 이름이었을 뿐이었는데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그들은 동생을 ‘수인’이라 부르고 있다. 수철 역시 수지의 물음에 감상적으로 대꾸하지만, 사실 수철 역시 동생 오목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동생의 행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물을 짓는다. 그들은 오목이를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헤어진 동생을 그리워하는 착한 언니 오빠 노릇을 하는 편을 택한다. 이산가족과 재회하여 가족 울타리를 확장하기보다는 현상대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 2) 뻔뻔한 망각술

수철 역시 수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오목이가 ‘오누이의 집’에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목이가 신문에 낸 광고 속 사진 한 장만으로도 그녀가 동생임을 확신하였으나 더 이상 알아보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기 말고 동생 오목이를 신문에서 알아본 사람의 제보가 올까 두려워하다가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자, “오목이를 그저 오목이인 채로 내버려둔들 어떠랴”(1권, 149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목이의 호적상의 이름인 ‘수인’으로 동생을 찾는 광고를 낸다. 이미 동생을 찾았는데, 다른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것이다.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찾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계속되는 한 이산가족 상봉은 영영 유예될 수밖에 없다. 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하는 것을 섬뜩한 계획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점점 자신을 속이는 일이 익숙해진다.

두 남매의 모르는 척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배타성을 보여준다. 두 사람 모두 오목이를 ‘고아원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며 여러 번 의식하는 말을 내뱉는다. 오목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수지에게 들켰을 때도 수철은 “불결”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어릴 때 헤어진 ‘오목

이'와 고아원에서 자란 '오목이'는 다르다면서 편견을 드러낸다. 또한 오빠 입에서 나온 “불결”이라는 말은 수지에 의해 ‘성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녀는 오목이가 인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윽고 (“인재의-인용자) 더러운 자취방”과 오목이의 섹슈얼리티를 연결시킨다. 이는 또한 가족이 배타적 경제 공동체가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다. 돈 굴리는 수완이 좋았던 은행원 아버지를 닮은 수철은 물려받은 유산을 착실하게 불려 사업을 키운다. 수철은 마지막까지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된 바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수출 무역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1970년대는 박정희 정부의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창이었던 것을 참고할 때 그의 사업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확장 일로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업을 키워나간 그는 자신의 재산 분배에 대해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지에게 ‘가난뱅이’와 결혼하면 수지 몫의 유산은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오히려 동생이 가난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자금을 보태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철의 경제에 대한 관념은 그런 소박한 것과 거리가 멀다. 그가 동생에게 지참금을 주어 결혼을 시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더 볼릴 수 있는 가능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인맥이 있는 기육이네와 혼사를 맺으려고 했던 것도 역시 모두 수철의 이러한 계산하에서 나온 것이다.

수철이나 수지 두 사람 모두 동생을 뻔히 찾아놓고도 모르는 척한다는 점에서 결백하지 않다. 하지만 ‘모르는 척’에 숨은 동기를 생각했을 때 그 췌값의 무게가 같다고만은 할 수 없다. 수지가 오목이를 찾고도 모르는 척하는 행동을 하는 데에는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녀는 자신이 일곱 살이던 1951년 겨울에 동생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부채감이 있다. 다섯 살 난 딸을 잃고도 중공군을 피해 피난길을 재촉했던 식구들이나, 평소 식탐 많은 오목이를 못된 아이라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섯

살은 “걸리기에도 업고 가기에도 반지빠른 나이”(1권, 39면)라 피난길에 오하려 짐이 되었을 거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들 모두 오목이가 이산가족이 된 데에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쟁 통의 어른들의 말대로라면 수지 역시 오목이처럼 이산가족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들 어른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생 오목이 유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수지 자신이라는 기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지는 동생 오목이 앞에 언니로 나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사정상 수지의 ‘모르는 책’은 그 동기가 불순할지라도 어쨌든 분명히 이유가 있다. 반면, 수철의 경우엔 수지와 같은 직접적인 동기가 없으면서도 동생을 찾는 것을 피할 뿐 아니라, 수지에 비해 어떤 반성이나 갈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손해 보기 싫어 동생을 ‘모르는 책’한다는 측면에서 속물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하지만 두 사람이 자신의 속물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지 차이가 있다. 수철의 ‘모르는 책’은 아도르노<sup>17)</sup>에 따르면 최소한의 위선도 생략한 “뻔뻔스러움을 위한 테크닉”의 경지에 오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951년 일곱 살 기억에 대해 계속 죄책감<sup>18)</sup>을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불안을 보이고 때때로

16) 소영현은 수지, 수철이 동생 오목이를 거듭 모르는 책하는 것에 대해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의 논의를 빌려 “계층적 자기보존”을 위한 “죄의식의 포기”로 해석한다. 본고 역시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나, 수지와 수철의 모르는 책의 양상에 분명한 차이 역시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사회의 속물화: ‘형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정치와 임계, 공공성의 모험』, 혜안, 2014, 163-200면.

17) 아도르노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담은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거짓말, 한때는 의사소통을 위한 자유주의적 수단이었던 거짓말은 뻔뻔스러움을 위한 테크닉이 되었다. 이러한 테크닉을 구사함으로써 모든 개인은 자신의 주변을 냉기로 두르고는 그 보호막 속에서 번창한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위의 책, 49면)고 지적한다. 수철의 거짓말은 점차 과거를 망각하는 뻔뻔스러운 형식이 되었고 이것은 그가 전후 사회에서 사업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 마사 너스바움은 “죄책감은 일종의 자기 처벌적 분노이며, 자신이 잘못이나 위해를 저질렀다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수지는 아직 가책이 남아 있다. 특히나 수지는 여러 번 오목이에게 자신이 언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아무도 자신이 동생 오목을 유기했다는 것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속였지만, 그녀 자신만은 속이지 못했다. 그녀가 ‘자기 속이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아직은 ‘죄책감’이 남아 있는 ‘위선’의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가 가족 내부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립감을 자주 토로하는 것은 수철처럼 자신을 완전히 속이는 뻔뻔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기 때문이다. 수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동생을 부인하는 죄를 거듭 반복하였다. 이것이 수지가 가진 현실적인 한계이고 끝내 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겪는 죄책감과 분열의 양상은 오빠 수철과는 다른 중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수철 역시 1951년의 피난길에서 동생을 잃었고 거기다 어머니가 폭격으로 죽는 현장까지 수지와 함께 목격했지만 그에게선 트라우마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처참한 기억을 떠올리기보다는 잊고 앞으로 나가는 데 몰두한다. 그가 자부하는 ‘지상의 낙원’은 전쟁 이전의 화목했던 가족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생을 찾

---

는 인식에서 생기는” 반면, “수치심은 결점이나 불완전성에 주목하고 감정을 느끼는 그 사람 자체가 지니는 일정한 측면에 관심을 두”(379면)는 것으로 정의한다. 마사 너스바움의 논의를 간추리자면 죄책감은 ‘행위’에 대한 것이고 수치심은 그것을 느끼는 주체의 ‘상태’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수지가 느끼는 감정을 구분해 보면 그녀는 자신의 잘못(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생기는 감정으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여러 이론적 논의가 있으나, 너스바움의 것이 수지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은 너스바움이 죄책감은 수치와 분명 다른 것으로 보고 그것의 긍정적 힘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하며, 공격성의 한계를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창조적일 가능성이 있다”(381면). 이러한 죄책감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수지가 느끼는 죄책감은 긍정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철의 죄책감 없음의 상태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았다.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는 신문광고를 내는 이유 역시 고아원을 찾는 수지와는 다른 것으로, 그에게는 가장으로서 잃어버린 식구 한 명을 찾는 책임의식의 대외적인 표출이 중요하다. 그가 사업가라는 사실 역시 우연한 것 같지 않다. 동생 오목이를 모르는 척하는 뻔뻔한 망각술은 전쟁 이후 사업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역시 필요했던 기술일 것이다.

### 3. 고아 신세 벗어나기의 어려움

#### 1) '집 같은 집'에 대한 열망

오목이가 고아원 '오누이의 집'을 나와 처음 간 곳은 재수학원 상담실이었다. 낮엔 사무실인 곳이 밤에는 잠자리가 되는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오목이는 "고아원의 춥고, 더럽고, 여럿이 함께 끼어 자는 불편한 잠자리"(1권 128면)를 면한 것에 기뻐했다. 하지만 학원 상담실에 실망하고 "이건 집이 아냐."(1권 128면)라고 실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혼자만의 정결한 침실"(1권 128면)이기는 하나, 오목이가 생각하는 '집 같은 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목이는 거둬 고아원과 같은 공동생활도 아니고 병원 침실 같은 외로운 독방도 아닌 '집 같은 집'을 소망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설을"(1권 92면) 쇠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건축물인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가족이나 추억까지 포함하는 것이 오목이가 원하는 '집'인 것이다.

오목이의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고아 신세를 면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의 가족을 찾거나, 그녀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는 선택지가 있다. 오목이는 이 두 선택지 모두에 희망을 걸었고 적극적이었다.<sup>19)</sup>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오목이라는 이름 석 자가 가족을 찾는 하

나의 끈이라 생각했고 고집스럽게 지켰다. 고아원에 처음 맡겨졌을 때부터 그녀는 다른 말은 잘 못하면서도 제 이름만은 ‘오목이’라고 기억했고 다른 이름을 부르면 절대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고아들은 원장 아버지의 성을 따 대부분이 ‘유’씨 성을 썼지만 오목이 혼자 ‘오’씨 성을 쓴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오목이는 아명일 뿐이었으며 원래 성은 ‘한’ 씨였고 이름은 ‘수인’이었다. 그녀가 본명 대신에 아명으로 오래 불린 것은 막내가 아들이 아니어서 실망한 아버지가 늦게까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목이는 스스로가 제 이름도 기억 못하는 다른 고아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자부했으며, 오목이라는 이름이 가족을 찾는 하나의 끈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가 기억하는 이름은 그녀의 오빠 수철이 ‘모르는 척’하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해 준다. 오목이라는 이름의 고아를 찾는 가족은 오목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더 철저히 은폐하고 ‘수인’이라는, 오목이는 절대 알 리가 없는 ‘호적상의 이름’<sup>20)</sup>으로 동생을 찾는 간교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목이는 다른 고아들과 달리 제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 하나 가진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은표주박 목걸이’였다. 오목이는 제 이름 만큼이나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우연히 대가 덕 자손들에게

19)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가 놓친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미숙은 막내인 오목이가 전쟁 이전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목이의 ‘유기’가 언니 수지가 행하기 전에 ‘예고’되었다고 할 만큼 가족 내에서 소외된 존재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제공한다. 하지만 오목이를 스페박의 ‘서발탄’이라 정의내리고, 오목이가 자라서도 ‘그녀를 아는 오빠와 언니의 호명만을 기다릴 뿐’, ‘끝내 하위주체’로 남는다고 설명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이 글은 생각을 달리한다. 이는 오목이가 고아 신세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주관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 글은 이에 대해 주목하고 가족에 대한 오목이의 환상의 형상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정미숙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 정미숙,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가족과 젠더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9권, 2006, 296-298면.

20) 수철이나 수지가 오목이를 배제하는 방식이 호적에 오른 이름과 그렇지 않은 이름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들의 방식은 다시 말하면, 호적에 오른 ‘이름(수인)’이 아닌 ‘별명 혹은 아명(오목이)’만으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태도다.

주는 물건이라는 소리를 듣고부터는 우쭐해지기도 한다. 그 은표주박이 자신이 “대가 댁의 귀염 받는 딸”(1권 133면)이었음을 상징하는 징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은표주박을 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느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다. 가족, 돌잔치, 때때웃, 엄마의 젓가슴, 아빠의 수염,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꾸중, 형제간의 우애……. 그것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떠오르던 이런 행복감의 추체험이 칠보 빛깔처럼 영롱하게 되살아났다.(1권, 113면)

하지만 이 역시 오목이가 만든 기억으로 통속적일 만큼 추상적이고 막연한 환상에 가까운 것이다. 애초에 ‘은표주박’은 오목이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언니가 동생을 유기하기 위해 쓴 미끼에 불과했다. 전쟁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기가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고 오목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는 아들도 아니고 둘째 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나 은표주박에 얽힌 사연을 모르는 채로 그것들이 가족을 다시 찾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않았다. 박완서의 단편 『재이산(再離散)』<sup>21)</sup>의 전쟁고아 몽동필 씨 역시 오목이처럼 언젠가 만날 가족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 역시 오목이처럼 어딘가에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애타게 자신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다. 오목이의 경우엔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환상과는 다른 가족의 실제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했던 반면, 몽동필 씨는 그가 오랫동안 품었던 환상이 깨지는 경험을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몸서리치게 싫어했고 고약한 양반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은 알고 보니 자신을 고아원에 손수 맡긴 친할아버지였고 고아원에서보다 더

21) 『여성문학』, 1984년 1월에 발표되었다. 본고에서는 단편집 4권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13에서 인용한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삼촌과 고모였다. 오매불망 그렸던 가족들은 알고 보니 전쟁 중에 고아가 된 조카에게 너무도 매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몇 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조카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무안을 주기까지 하는 분위기다. 몽동필 씨나 오목이가 고아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 전쟁 통의 가족이란 ‘나에게도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황홀한 희망’(『재이산』, 14면) 속의 가족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목이가 고아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은표주박 목걸이나 이름을 통해 원래의 가족을 찾는 것이라면, 또 다른 방법은 그녀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다. 명절날 ‘오누이의 집’을 찾았다가 원장 부부가 떠난 빈 집에서 다시 만난 고아원 출신인 유일환은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고아 신세를 벗어나자고 제안한다. 그는 제법 의젓하게 오랫동안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결혼해서 가족을 꾸려 고아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보일러 기사 주임으로 취직했다며 명함을 내밀면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일환의 말을 오목이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도리어 속으로 일환이의 얼굴을 품평하고 궁색해 보이는 입성을 “덮어놓고 깔보”(1권, 120면)고, “천애의 고아끼리 서로 속을 알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이라는 일환의 말에 오히려 당치 않는 소리라고 잡아땀다. “고아는 고아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1권, 120면) 싫다는 것이다. 오목이의 반응에서 서로가 고아라는 것을 잘 아는 일환과 함께 있는 한 고아원이라는 공통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고아라는 딱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오목이는 결혼하자는 일환에게 재수학원 상담실에서 주경야독으로 일해서 여대생이 될 것이고, “고아는 고아끼리”라는 세간의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겠다고 장담했으나 쉽지 않다. 그녀는 우연히 재수학원 학생이었던 미순이네 집에 방문했다가 그 집에 눌러 살게 되어 공부를 하겠다

는 꿈을 이루진 못한다. 오목이를 그 집에 살도록 홀린 것은 정말 별 게 아니었다. 그저 “겨우 시척지근한 김치찌개 냄새, 화강암 땃돌에 흠어진 크고 작은 신발들”(1권, 145면)에서 오목이가 생각하던 ‘집 같은 집’이라는 이미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고아원을 떠나 재수학원 상담실에서밖에 살아 보지 못한 오목이로서는 미순이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사람 살아가는 모습의 정다움”에 가깝다고 চে멋대로 생각해 버린다. 하지만 오목이를 홀렸던 사람 살아가는 모습의 정다움은 곧 본 모습을 드러낸다. 오목이는 미순이네 가게에서 일하는 박군이라는 남자와의 혼담을 진행하는 가족에게서 ‘자비의 위선’을 본다.

안에서 부리던 여자와 밖에서 부리던 남자를 혼인시켜 그들보다 한 등급 낮은, 그들 가족에게 종속된 하인 가족을 만들어서 아쉬울 때 적절하게 써먹자는 속셈을 누가 모를 줄 알구.(1권, 246면)

오갈 데 없는 고아를 거두어 혼사를 치르려는 미순이네는 겉으로는 대단한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실은 주종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목이의 진단이다. 우선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뿐더러, 스스로가 대가 집 딸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는 고아끼리 맺어져야 한다는 세간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오목이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오목이는 미순이네 식구들이 잠든 사이 “늘 떠나기를 준비해온 것처럼” “단 한 서랍 속에 정리돼 있었”(1권, 228)던 짐을 꾸러 미련 없이 집을 나선다. 하지만 그동안 모은 ‘돈’을 헤아려 보고서야 미순이네가 베푸는 알량한 ‘자비’에 완전히 속지 않았다고 장담했던 오목이 자신 역시 그들이 내세우는 ‘가족’이라는 말에 결국 속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식모 월급 절반도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이집의 가정교사 노릇이며 살림을 해왔다. 오목이가 오륙년의 시간 동안 ‘한시반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

했음에도'(1권, 288면) 이런 대접을 받았던 것은 오목이가 '양딸'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목이를 이끌었던 '집 같은 집'이라는 분위기가 도리어 덧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정다운 한옥에 흘러'(1권, 290면) 오목이는 이 집 가족이 되었으나, 오목이는 이 2자 한옥의 가족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외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2) 좌절된 가족 만들기

고아를 따돌리는 '고아는 고아끼리'라는 세간의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오목이는 증명하고자 했다. 그녀는 자신도 다른 성인 남녀들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필 그녀가 처음 마음을 준 남자가 수지의 옛 애인이었던 인재다. 그녀는 인재가 대기업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라는 사실에 호감을 느끼고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숨긴다. 그리고 인재가 관심이 있든 없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과잉으로 받은 딸인 것처럼 행세하고 묻지도 않은 가족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렇게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마음에 인재에게 가족 이야기를 과장되게 늘어놓지만 그로부터 환심을 사지 못한다. 특히 오목이가 인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까지 '최오목'으로 바꾸어 소개했다는 점을 미루어 그녀의 마음이 그만큼 절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목이는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자신이 다른 고아들과 달리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 남다른 자부를 느끼고 절대 '오목이'라는 이름 석 자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인재에게만은 고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끈이라 생각했던 이름을 포기하고 미순이네가 내키지 않는 양딸을 시켜주면서 얻게 된 '최'씨 성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이다. 하지만 오목이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붙잡아 두고 싶어했으나 인재는 애당초 오목이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인재는 오목이를 전 애인인 수지에게 당한 일들에 대한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한다.

우연히 한 동네에서 만난 오목이를 그의 자취방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지의 연인이기도 했던 인재는 가난한 고학생이던 시절을 벗어던지고 출세하려는 욕망이 큰 남자였다. 수지는 인재가 어려움을 이겨낸 꿈 많은 고학생에서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단숨에 변신하고 만족하는 것을 보고 오목이가 그를 좋아하기 전부터 실망했다. 물론 그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도 주요했지만 말이다. 인재가 변했다는 그녀의 예감은 “구질구질한 잠바” 대신에 “신사복”을 차려 입은 졸업식날의 인재의 외양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인재는 입사하게 된 회사 건물이나 여유있는 표정을 짓는 직장 동료들에 금방 압도되고 자신 역시 관록 붙은 화이트칼라(1권, 221면)가 될 것을 자신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 인재가 취직한 기업은 수출 실적의 랭킹이 해마다 뛰어오르는 젊고 유망한 기업(1권, 220면)으로 그 회사가 “신화적인 신장세를 자랑하기 위해 작년에 서울 한복판하고도 금싸라기 땅에 신축한 빌딩은 20층이 넘었”(1권, 220면)다<sup>22)</sup>고 한다. 그는 이제부터 착실한 샐러리맨의 삶을 살 것이고 거기에 걸맞은 다른 여성을 만날 것이다. 그런 인재에게 애초부터 오목이는 고아가 아니더라도 관심 밖이었다. 실제로 몇 달 후에 수지가 오목이의 일이 걱정되어 인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지방 출신 고학생이 풍기는 촌스러움을 벗어 버리고 신사복이 어울리는 샐러리맨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그에게 오목이를 성적으로 이용했다는 가책이 있을리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아원만 면한 거지, 고아를 면한 건 아니었어”(1권 311면)라는 춘자의 말은 고아 신세 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월이

22) 인재가 졸업도 하기 전에 회사에 입사한 것이 대략 1970년대 초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대우빌딩이 세워지기 전이긴 하지만 그가 말하는 수출 실적이 좋은 회사로 신장세를 자랑하기 위해 이십 층 짜리 건물을 세운 것은 대우그룹으로 추정된다. 서울 시내에 20층이 넘는 대형빌딩이 지어진 것은 1977년이 처음인데 서울역 앞에 세워진 25층짜리 대우빌딩이 그것으로 이 건물은 신경숙의 『외딴방』에 언급되기도 했다.

흘러 이제 전쟁으로 고아가 된 오목이와 같은 사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떨어졌다. 이산가족이 된 고아에게 공짜로 신문 광고를 내주면서 가족을 찾아주는 언론도 더 이상 없다. “여론의 관심사는 소수의 잃어버린 지난 시간이 아니라 대다수의 약속된 미래의 시간”(1권 95면)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잘살 수 있다.”(1권 95면)라는 구호가 여러 번 반복되자 처음에는 “허황하기만 한 소리가”(1권 95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켰고, 모두들 그 단꿈에 젖어 고아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없다. 고아 신세를 벗어나고 싶다는 오목이 나름의 계획은 점점 멀어진다. 고아원을 나온 지 오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고아인 오목이가 정착할만한 곳은 없다. 미순이네나 인재나 모두 오목이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고 오히려 때에 따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오목이는 같은 고아원 출신인 일환이가 춘자가 표상하는 문란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 기대한다. 오목이는 춘자에게 “우리 같은 애들은 다 결국은 너처럼 되고 만다는 생각은 참 싫구나”(1권 313면)라면서 술집에 나가자는 권유에 대해 부정하지만, 사실 그녀 역시 실제로 춘자와 함께 밤 외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오목이가 뒤늦게 일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목이는 지난 오년을 “자신이 헛된 꿈을 꾸는 동안”(1권, 318면)이라고 정리하고 일환이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오목이가 일환을 찾아가는 것은 오년 전 빈집이 된 ‘오누이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주던 일환이를 냉담하게 바라본 오목이를 떠올려 봤을 때,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순종과 정숙을 맹세함으로써 헛된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다”(1권, 319면)는 오목이의 말을 통해 그녀의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인재와의 일로 자신이 더 이상 ‘정숙한 여성’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데 이러한 자책은 일환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오목이는 더 이상 일환이를 냉담한 눈으로 보지 않을뿐더러,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이상 전

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오목이의 계산이 찾은 일환이 역시 오년 전과 달라져 있었다. 일환이는 더 이상 자기 기술로 돈을 벌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자신했던 순진한 기술자가 아니다. 그는 이제 보일러 기술이라는 것이 성실히 일한다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뿐더러, 여러 여자들과 살림을 차렸다 실패한 경험까지 가지고 있었다. 일환 역시 오목이처럼 고아 신세 벗어나기 어려움을 실감할만한 경험을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일환이가 달라진 것을 판단할 만한 여유가 없는 오목이에게 그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둘은 부족한 돈으로나마 남의 집 지하실에 신접살림을 차린다. 궁지에 몰린 오목이의 상황이 일환이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오목이는 아예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지는 않는다. 햇볕도 없는 지하방일지언정 거울을 사서 놓고 홈웨어를 입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오목이의 모습은 상징적이다. 스위트 홈을 표상하는 물건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오목이가 행복한 가정<sup>23)</sup>에 대한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실제로 서로 처지를 아는 고아끼리 만나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일환이의 오년 전 말을 믿어보겠다고 결심한다.

그런데 뜻밖의 예감이 가족에 대한 오목이의 꿈을 방해한다. 오목이는 일환과 살림을 꾸린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놀란다. 그 아이가 인재의 아이일 것이라 예감했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열 달이 못 되어 아기가 태어난다. 오목이는 남편에게 팔삭둥이라 말하지만, 자기의 아이가 아닐 것이라는 일환의 의심은 짙어진다. 일환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가정 폭력을 휘두른다. 후반부인 2권에서 묘사되는 오목이의 생활은 끝날 줄 모르는 불행 속에 있다. 첫째 일남이가 일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23) '스위트 홈'이라는 표상은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어왔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졌으나 1970년대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작동한다. 백지혜, 『스위트 홈의 기원』, 살림, 2015를 참고.

피한 채로 두 부부는 살아간다.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오목이는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산다.

오목이의 태도는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 하더라도, 처음의 그녀의 태도와 비교할 때 너무나 큰 변화다. 그녀는 자신이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정숙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행복할 순”(2권, 129면)없다면서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된 결혼생활을 피하지 않는다. 그녀는 본래 비록 환상일지라도 스스로가 대갓집의 귀한 딸이라고 믿는 등 꽤나 자존심이 있는 인물이었으나, 이제는 이전의 자신있는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너무나 자학적인 자세가 되어버린 것이다.<sup>24)</sup> 사실 그녀의 임신은 인재의 강제에 인한 것이었다. 명백히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그녀는 자신을 탓한다. 오목이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성도덕이 그녀가 거리를 두었던 고아원 동기인 춘자와 다르고, 언니 수지의 것과 가까움을 보여준다.

오목이네 부부의 가족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표면적으로 오목이가 낳은 일남이 때문에 생긴 갈등이지만, 고아원의 기억이 잊을 만하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일환은 고아원을 찾은 자선가들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던 기억이 싫어서 가족사진 한 장 남기지 않으려는 결벽성을 보인다. 오목이는 일환이가 한 번도 편하게 잠이 들지 못하고 끄끙 앓듯이 자는 것을 보고서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폭력과 자학이 끊이지 않는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오목이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섯 번째 출산을 감행한 끝에 아들을 낳고 나서다. 일환의 변화는 드디어 자기 자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들 부부 사이에서 먼저 낳은 딸만 해도 셋이나 되는데 여태껏 자기 자식이 없다는 듯 행동

24) 오목이가 가진 ‘성도덕’은 그녀가 『그 남자네 집』의 춘희나 『공항에서 만난 사람』과 같은 무대소 이주머니와 같은 인물이 보여주는 “민중적 여성 영웅”(신수정, 『1970~1980년대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와 중동 건설 노동자 가족의 에토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공모와 균열의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0, 2016.)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았다.

하다가 아들을 낳은 후에야 이루어지는 일환의 변심은 당대의 남아선호 사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다.<sup>25)</sup>

#### 4. 반성하는 속물의 마지막 위선

수지는 오빠 수철과 달리 동생 오목이를 모르는 척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녀는 스스로가 위선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모순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안을 느낀다. 소설의 첫 장면에서 창밖으로 강이 내다보이고 당대 중산층의 취향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거실, 그리고 그 안에 바둑 두는 남편, 뜨개질하는 아내,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두 아이들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있었다. 이 모습은 잡지책에 나오는 화보처럼 전형적인 행복의 장면을 연출한다. 그런데, 일곱 살 난 형과 두 살 터울의 동생이 티격태격 싸우면서 갑자기 거실을 채우고 있던 안정이 깨진다. 엄마(수지)는 큰 애를 작은 애로부터 떼어놓으면서 먹살을 잡고 따귀를 때린다. 한 눈에 봐도 과잉반응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더욱 놀랍다. 아내의 돌연한 폭력에 놀라는 남편(기욱)에게 아내(수지)는 큰 애가 저러다 “동생을 죽일지도 몰라요.”(1권, 19면)라는 말을 한다. 갑작스러운 수지의 반응에 남편도 아이들도 어리둥

25) 본고는 본문에서 말한 오목이와 일환이의 화해에서 엿보이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오목이가 다섯 번째 아이를 낳고 일환이 일남이를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신가족공동체'를 말하는 해석과 생각을 달리한다. 우현주는 정미숙의 논의를 이어 받아 일환이가 첫째인 일남이의 존재를 오목이가 다섯 번째 아이로 아들을 낳자 뒤늦게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오목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수지가 오목이의 아이들을 거두는 것 등에 주목하여 '신가족 공동체 형성'을 말한다. 하지만, 오목이가 일환이와 살면서 세 딸을 낳고도 아내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상기할 때, 이는 오히려 '장자 이태올로기', '가부장적 규범'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신가족 공동체 형성'에 대한 해석은 다음을 참고. 우현주,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수평적 신가족 공동체 형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66, 2015.

절해 한다. 특히 남편은 수지의 “정신” 상태를 들먹이며 “정신병원”이라는 말까지 꺼내는 등 수지의 불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 수지가 1951년 겨울을 떠올리면서 어린 아들에게서 ‘살의’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공간은 그녀가 기옥과 결혼하면서 희망했던 집이었다. 남으로 강이 보이고 나무가 많은 뜰을 가진 넓은 집은 그녀가 소원했던 것으로, ‘고아’였던 수지가 마침내 남편과 두 아들을 낳고 일가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수지는 이 안락한 집에 편안하게 안착한 것 같지 않다. 수지와 기옥 부부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이 있을 뿐 아니라,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7장 『안개 속의 집』에서 수지의 ‘불안’은 가속화된다. 그녀는 “허탕 친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남들은 수지의 이런 괴로움을 전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남들이 보기에 여태껏 손해 보는 선택을 했다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일을 겪지도 않고 살았다. 대학시절 인재라는 가난한 고학생을 사귀기는 했으나 헤어지고 기옥이라는 유복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다. 물론 이 결혼에 어떤 애정이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수지는 결혼에 대해 낭만적인 기대를 할 만큼 순진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해로울 것이 없는 선택에 만족했다. 역시 오빠의 뜻을 따른 덕에 수지 몫의 유산도 순조롭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돈만 아는 부자가 아니라 지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수지 평소의 지론대로 그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뿐 아니라 시간을 내어 돈 많은 부인들과 자선행사를 주관한다. 이처럼 수지는 줄곧 허탕 친 기분이 들지 않도록 열심이었지만, 허탕 친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는 자신에게서 ‘혐오’를 느끼기까지 한다. 이 혐오란 일차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물건에 최대의 감격을 표시한 자신의 능란한 위선’(2권, 151면) 때문이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녀가 뽀뽀 싸맨 1951년의 겨울의 기억을 다른 누구도 몰라도 자신만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로도 오목이가 동생이라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다. 자신의 친

동생을 유기하고 이후 언니라는 것을 밝힐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는 다른 고아들에게는 위선적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한 번은 실수였다고 칠 수 있더라도 두 번이나 동생을 버렸다는 사실은 그녀를 괴롭힌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괴로움에 못 이겨 동생 오목이를 만나 죄를 고백할까봐 두렵다.

고아인 것을 숨기고 인재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오목이를 수지가 망신 준 후 얼마간 세월이 흘러서야 두 사람은 재회한다. 1951년에 헤어진 후 세 번째 만남이다. 다시 만난 오목이는 가난과 거둬되는 출산, 그리고 남편의 폭력으로 병들고 지친 상태였고 수지는 더욱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목이의 외모에서 풍기는 신산한 삶의 흔적이 수지의 잘못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수지는 그런 오목이를 보고 죄를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부부가 소원하는 일환의 중동행을 성사시켜주고 인연을 끊으려고 한다. 자기가 죄를 고백할까봐 무서워서 오목이로부터 도망을 가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환이 중동으로 떠난 후 오목이는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수지는 오목이와 연을 끊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진 못한다.

병자의 침상을 지키고 다섯이나 되는 아이들을 거두어 먹이고 더러운 구정물을 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수지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드디어 수지가 동생 오목이에게 화해를 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목이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여전히 오목이가 측은할 때에만 핏줄의 정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수지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던 오빠 수철이 완전히 동생을 망각한 것처럼 뻔뻔한 태도를 취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수지의 위선은 그래도 최소한 자신의 속물성을 알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지와 오목이 사이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삼십여 년 전에 저지른 '죄'를 시작으로 하여 오랜 세월 '모르는 척'하였던 잘못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오목이가 수

지를 용서할 만한 능력이나 기회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수지를 비롯한 1980년대의 시공간은 오목이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실제로 고아원에서 자란 오목이는 수지나 수철과 같은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교육받은 계층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았다. 고아원에서 자란 두 사람은 살림을 시작할 때 여윳돈을 챙겨주는 부모도 없었고 정서적으로 기댈 만한 사람도 역시 없었다. 거기다 일환에겐 보일러 기술을 비롯하여 여러 기술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이들 부부는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끼니를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오목이네의 상황은 “우리도 잘살 수 있다”(1권 95면)라는 신화적인 구호로부터 이들 고아 부부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수지와 오목이네의 경제적 차이를 통해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몇 십 년이 지나 가족이 다시 만나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부가 원했던 중동행은 두 고아 부부가 안정적으로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중동행은 1970·80년대의 중동개발 붐<sup>26)</sup>을 반영한다. 베트남 특수가 끝나고 석유파동으로 몇 차례 타격을 입은 내수경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했고 중동행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 오목이네 역시 외화벌이로 선전된 중동행으로 목돈을 벌어서 다섯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목이는 남편 일환이 중동에 간 뒤에 얼마 안 있어 폐결핵으로 죽는다. 오목이가 그토록 고아 신세를 벗어나보려고 했지만, 또 그녀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 남겨진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이산가족 상봉을 가로막는 것이 비단 전쟁이나 분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개발주의 국가 정책과 그 사회

26) 당대의 중동개발 붐을 담은 박완서의 단편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 신수정, 『1970~1980년대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와 중동 건설 노동자 가족의 에토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공모와 균열의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0, 2016; 오자은, 『무엇이 중산층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가?: 70-80년대 중산층 여성 소설들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95, 2018.09.

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무의식 역시 면죄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통해 한국사회의 속물성의 근원이 전쟁에 대한 망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확보는 중산층계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박완서 작가의 다른 소설을 독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 참고문헌 |

1. 1차 텍스트

-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 2』, 세계사, 2012.  
\_\_\_\_\_,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13.  
\_\_\_\_\_,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4: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13.

2. 2차 텍스트

1) 소논문

- 김경태·김영모, 〈근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7%BC%EB%8C%80%E>  
D%99%94&ridx=0&tot=2189
- 김승경, 『1980년대 이산가족 영화에서 드러나는 가족주의 양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55, 2013, 217-245면.
- 권명아, 『작품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가족의 기원〉에 관한 역사소설적 탐구』,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박완서 문학 30년 기념비평집』, 세계사, 2000, 289-299면.
- 류보선, 〈분단소설(分斷小說)〉,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6483](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6483)
- 류보선, 『해설: 개념에의 저항과 차이의 발견-박완서의 초기소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13, 423-463면.
- 소영현, 『해설: 한국 중산층의 형성과 한국전쟁이라는 죄의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 2』, 세계사, 2012, 341-364면.
- \_\_\_\_\_,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사회의 속물화: ‘형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정치의 입계, 공공성의 모험』, 해안, 2014, 163-200면.
- 신수정, 『해설: 자아의 서사, 소설의 기원-진경시대 예술가의 초상』,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13, 447-472면.
- \_\_\_\_\_, 『1970~1980년대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와 중동 건설 노동자 가족의 에토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공모와 균열의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0, 2016, 339-368면.
- 오자은, 『무엇이 중산층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가?: 70-80년대 중산층 여성 소설들을 중심으로』,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95, 2018.09, 378-406면.
- \_\_\_\_\_, 『중산층 남성 되기의 문법과 윤리의 문제: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을 중심으로』

- 로』, 『여성문학연구』 45호, 2018, 119-156면.
- 우현주,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수평적 新가족 공동체 형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66, 2015, 49-71면.
- 이광복, 『저자와의 대화: 장편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작가 박완서』, 『北韓』 No.155, 북한연구소, 1984, 215-221면.
- 정미숙,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가족과 젠더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9권, 2006, 293-293면.
-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흉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7(1), 2011, 71-92면.
- 차미령, 『생존과 수치: 1970년대 박완서 소설과 생존주의의 이면 (1)』, 한국현대문학회, 2015, 『한국현대문학연구』 Vol.0 No.47, 445-480면.
-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朴婉緒 長篇小說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창작과 비평』 15(3), 1985.10, 269-282면.

## 2) 단행본

- 아도르노, 테오도르 W., 김유동 역, 『미니마 모랄리아』, 길, 2005.
- 짐멜, 게오르그, 김덕영·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 너스바움, 마사,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 3) 영화

- 배창호 감독, 영화 〈그해겨울은 따뜻했네〉, 1984.
- 임권택 감독, 영화 〈길소뜸〉, 1985.

<Abstract>

The Desire and Hypocrisy of Korean Society  
Reflected in a Novel about Divided Families  
—Focusing on Park Wan-seo’s *The Winter was Warm in that Year*

Moon, Hwa

The article analyzes Park Wan-seo (1931-2011)’s novel, *The Winter was Warm in that Year*(1983), revealing the desire and hypocrisy of Korean society hidden in the practice of cross-border family reunions. It was snobbish attitudes that prevented family reunions, coercing people to forget the past and move forward under superficial slogans like “Let’s live well” (“Jal sal a bose”). This article reveals the snobbery and brazenness of the characters, Susie and her brother, in their facade in failing to find their missing sister, Omok in the novel. Meanwhile, Omok’s struggling in the novel evidences the challenges for orphans to start new families in the mid-1960s in Korea. Omok’s husband left her for a job in the Middle East and she eventually died alone leaving her children orphans despite her struggle to break away from the confines of being an orphan. This novel reveals the obstacle that society’s obsession with wealth poses on family reunion, a point of view that has yet been overlooked in other stories about divided families.

Key words: Park Wan-seo, *The Winter was Warm in That Year*, snobbism, divided families, hypocrisy, guilty, brazenness

투 고 일 : 2020년 1월 29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18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